

동국대학교일산병원 News Letter

동국대학교 총장 보광 스님,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 발전기금 1000만 원 쾌척

동국대학교 총장 보광 스님은 지난 19일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발전기금으로 1000만 원을 전달했다.
앞서 보광 스님은 지난 2015년에 1000만 원을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발전기금으로 기부한데 이어 두 번째 이어지는 나눔 실천이다.
동국대학교 총장 보광스님은 “해가 갈수록 발전하는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의 모습에 감회가 새롭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병원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기부 취지를 전했다.



3년 연속 만성폐쇄성폐질환 걱정성평가 ‘1등급’ 획득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만성폐쇄성폐질환 걱정성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인 1등급을 획득했다.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은 조기 진단과 치료가 매우 중요한 질환으로 심평원의 이번 평가는 환자관리의 질 향상 도모와 중증으로의 이환을 줄이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제공하고자 지난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3차 평가는 2016년 5월부터 2017년 4월까지 1년간 만 40세 이상의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가 방문한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평가 항목으로는 ▲폐기능 검사 시행률 ▲지속방문 환자비율 ▲흡인기관지 확장제 처방률 등 만성폐쇄성폐질환의 표준 치료에 대한 올바른 시행여부이다.
그 결과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종합점수 동일종별 평균 75.12보다 크게 웃도는 90.09점으로 3년 연속 1등급을 획득하게 됐으며, 만성폐쇄성폐질환에 있어 지역을 대표하는 최우수기관임을 입증했다.

신경외과, 뇌수술용 4K 초고화질 내시경 시스템 도입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신경외과는 최근 최첨단 수술용 의료장비인 초고화질 내시경 시스템 (4K ENDOSCOPIC SYSTEM)을 도입했다.
내시경 시스템에서 초고화질 영상 장비 도입은 신경외과 분야에서는 국내 최초로 더욱 의미가 있다.
내시경 시스템은 뇌하수체 선종 등의 안장 또는 안장 주변 종양의 내시경적 접근에 주로 사용된다. 또, 안장 주변 종양은 위치가 깊고 비강을 통해 접근하기 때문에 진입경로가 좁아 수술 시 시야 확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뇌실 내 종양의 생검 또는 제거, 폐쇄성 수두증에서 셋째뇌실 천공술, 뇌동맥류 결찰술 등 신경외과 수술의 다양한 분야에서 최소 침습적 수술을 시행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이번에 도입된 신경외과 초고화질 내시경 시스템은 독일 유명 브랜드의 2018년 최신 모델로 수술 부위를 초고화질 UHD 영상(4K)으로 보다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로써, 질병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더욱 안전하고 세밀한 수술을 진행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고, 수술 후 합병증을 줄여 수술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



재활의학과 김승연 전공의, 전문의 자격시험 전국 최고득점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재활의학과 김승연 전공의는 2018년도 제61차 전문의 자격시험에서 재활의학과 분야 전국 최고 득점을 기록했다.
2018년도 전공의 시험 응시자 총 124명 중 1차, 2차 합산결과 최고 점수로 수석 합격을 하는 쾌거를 이뤘다.
김승연 전공의는 “수련 기간 동안 지도교수님과 선배들의 격려가 수석 합격의 영광을 가져다준 것 같다.”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의학 공부와 환자 진료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한편, 재활의학과 김승연 전공의는 2017년 대한재활의학회가 주관하는 제23회 전공의 평가시험에서도 수석을 차지한 바 있다.



자원봉사자 평가대회 진행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난 1월 26일 본원 5층 대강당에서 자원봉사자 평가대회(신년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1년 동안 병원을 위해 열심히 봉사한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이날 모범봉사자와 개근봉사자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다.
특히, 이날 행사에 병원 개원부터 현재까지 13년간 꾸준히 봉사활동을 해 온 유일순, 박춘자 봉사자의 은퇴식도 함께 진행해 그 의미를 더했다. 또한, 자원봉사자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외부 강사를 초청해 웃음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해 봉사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은퇴 봉사자는 “함께 해준 자원봉사자 동료들이 있어 서로 도와가며 열심히 할 수 있었다.”며, “불자로서 동국대학교병원에서 봉사활동 할 수 있어서 자랑스럽고 행복했다.”고 소감을 말했다.

